



'클래식하고 전형적인 칠레 와인'

센데로 까르미네르

Sendero Carmeneré

지역	칠레 > 센트럴 밸리		
포도품종	까르미네르 85% 까베르네 소비뇽 15%		
알코올	12%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밝은 루비 레드 컬러에 신선한 레드 베리와 까르미네르 품종 특유의 약간의 피망, 후추향이 매력적이다. 미디움 바디로 벨벳과 같은 부드러운 탄닌이 느껴지고 피니쉬가 우아하고 길게 이어진다. 파스타, 치즈 등과 좋은 페어링을 보여준다.		
페어링 TIP	흰 육류/ 단단한 치즈/ 매운 음식		



제품설명



'길(Path, Trail)'이란 뜻의 센데로(Sendero)는 칠레 NO.1 와이너리 콘차이토로에서 칠레 와인에 입문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클래식하고 전형적인 칠레 스타일의 와인을 선보이기 위해 만든 브랜드이다. 각 품종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각 품종과 어울리는 음식과 매칭하여 마시기 좋다.

와이너리



1883년 설립된 콘차이토로는 남미의 대표 와이너리로 현재 전세계 147개국에 수출 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두하는 와이너리이다. 1997년 프랑스 특급 와인의 자존심인 샤토 무통 로실드의 바롱 필립 가문과 조인트 벤처로 알마비바를 출시하여 칠레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의 장을 연 콘차이토로는 10,800헥타르가 넘는 빈야드를 칠레 뿐 아니라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문지 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와이너리에 등극하였다. 콘차이토로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전문지 100대 와인에 총 8번 선정되어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플래그십 와인 까르민 데 페우모는 칠레 와인 중 로버트 파커 최고 점수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이렇듯 콘차이토로는 최고급 와인부터 트리오, 프론테라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까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와이너리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